



## 주제: 42. 바이블 어워드

### 달달말씀

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 
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 
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 
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  
지를 전하니라 (사도행전 9:27)

### 이야기 성경

\* QR코드를 스캔  
하여 말씀챗트를  
만나보세요~!



### 말씀 배우기

1. 친구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?  
왜 고마웠나요?  
( )
2. 바나바가 받았을 상의 이름을 적어보고  
바나바의 수상소감을 상상해 말해보세요.  
( )
3. 바나바처럼 받고 싶은 상이 있나요?  
그 상의 이름을 적어봅시다.  
( )

### 성경이 궁금해요~!

#### 바나바: 위로의 아들

‘위로의 아들’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족 사람입니다. 이름은 요셉이지만 바나바로 불리는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.

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.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.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

그런데 단 한 사람,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어요.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.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.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, 전도여행까지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.

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도록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지요.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자라 나며,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해봅시다.

### 나눠 봐요

- \*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, 바울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
- \*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?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나눠봅시다.